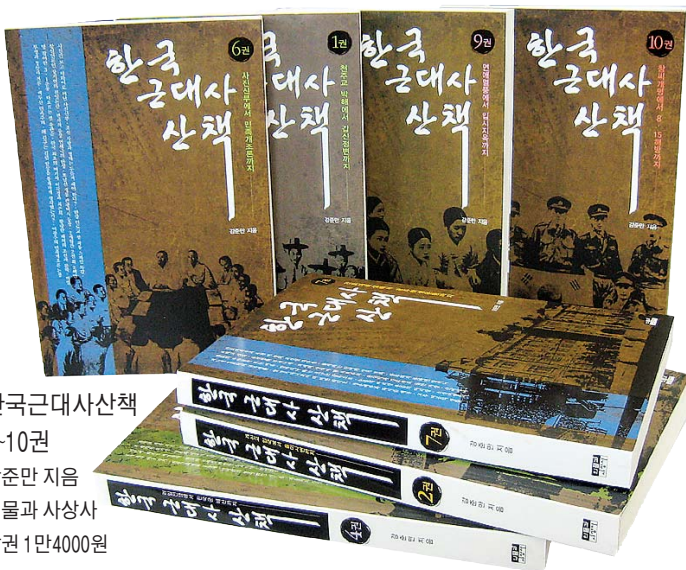


강준만의 '1910년 8월29일과 일제 36년'... 근대사로의 여행



한국근대사 6-10권
강준만 지음
인물과 사상사
각권 1만4000원

이선정 기자 silee@kookje.co.kr

우리시대 대표 논객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최근 관심사는 역사다. 지난 2004년 해방에서부터 서울 올림픽까지를 다룬 '한국현대사 산책' 18권을 내놓은 저자가 이번엔 근대사를 섭렵했다. 강 교수는 1876년 강화도조약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근대사를 훑은 10권의 '한국근대사 산책'을 최근 완간했다. 지난해 경술국치까지 다룬 1-5권을 발표했으며, 일제강점기를 다룬 6-10권을 1년만에 내놓은 것.

사학자도 아닌 언론학자가 역사 분야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그는 "한국인론사를 강의할 때 학생들이 배경지식으로 읽을 만한 근현대사에 관한 책이 없어서"라고 밝혔다. 심각하고 딱딱하다는 역사에 대한 편견은 특유의 거침없는 '글발'이 어지없이 무너진다.

저자는 각종 신문기사를 사료로 생소한 역사도 기억의 중심으로 끄집어낸다. 조선인 대학살, 성노예 등 일제 강점기 치명적이거나 기억에서 지워져야 할 기억을 되살려주는 '알짜배기' 역사를 알 수 있는 '알짜배기' 역사 지식에 가득하다. 전 공명계 근대사 신문 역사의 다룬다.

6권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날로부터

시작한다. 책에 따르면 조선총독부가 조선 정부를 대신하게 됐고 엘리트들 중심으로 한 조선인 포섭 정책을 펼치게 시작한다. 이에 반대한 엘리트들의 국권회복 움직임도 일어난다.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하고 군대를 양성해 나라를 되찾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같은 독립군기지 건설 구상은 병합 직후 비밀결사인 신민회에 의해 '서간도 이주 사업계획'으로 추진됐다.

'조선사람과 명태는 두들겨 패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는 조선인에 게만 가혹했던 태형의 실체를 밝힌다. 일본은 자국에서는 1882년 폐지한 태형을 유독 조선인에게만 적용했다. 태

나무가 쉽게 부러진다 해서 소의 음경으로 만든 때로 태형을 집행했으며, 때를 맞는 도중 또는 귀가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우는 아이 눈물 그치게 만드는 '손사 온다'는 말도 나왔다. 부산경찰서를 폭파해 서장을 사살한 박재혁 열사도 사형에 처해졌고 있다.

7권에 소개된 간토(關東) 대학살은 한국인조차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비극이다. 1923년 9월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구성, 조선인들을 다치는 대로 학살했다. 당시 도쿄에 살던 조선인 3만 명 중 6000명이 조선인이

라는 이유만으로 9월1일부터 6일 사이 무차별 학살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03년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조선인 학살을 유발한 유언비어가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됐음'을 발표했다. 당시 조선의 신문들은 검열에 걸려 한 줄도 보도하지 못했고,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일본 정부는 유언비어 배포죄로 조선인들을 잡아들인다. 이렇게 체포 투옥된 사람이 122명, 불은 인종차로 훈계 받던 사람이 1317명에 이른다

다. 민족의 지도자 여운형이 당시 조선중앙일보 사장에 취임하면서, 신문은 친일파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항일운동을 펼쳤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현재 '자정기'를 재경쟁을 능가하는 이진투구도 다루고 있다. 동아일보가 초반 압도적 우세를 보이다가, 금광에서 노다지를 발견해 벼락부자가 된 방용모가 1933년 조선

일보를 인수하면서 전세는 역전된다. 특히 조선일보가 '동아'를 후원 이광수를 영입하면서 두 신문간 싸움은 격해진다.

9권은 1930년대 문화현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정초는 취미'로 여기는 자유연애, 아편처럼 확산되는 커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라디오 방송 등을 소개한다. 일본 유학생 1만-3만 시대에 접어드는 이 시기 교육열은 현재 못지 않다. 10권은 세계 2차대전을 시작으로 한 일제의 '마지막 발악'을 다루고 있다. 창씨개명과 신문 폐간, 징병제와 학도병 파동, 여자정신대 근무령, 일제 강제에 의한 오키나와 집단 자결 사건의 실상을 보여준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식민지근대화론' 화론 친일파 논쟁을 넘어 일제 36년 보와 동아일보의 현재 '자정기'를 재경쟁을 능가하는 이진투구도 다루고 있다. 동아일보가 초반 압도적 우세를 보이다가, 금광에서 노다지를 발견해 벼락부자가 된 방용모가 1933년 조선일보를 인수하면서 전세는 역전된다. 특히 조선일보가 '동아'를 후원 이광수

조선인대학살·성노예 등 치명적은 기억에서부터 연애·커피 열풍, 입시지옥, 언론역사 같은 생소한 알짜배기 역사지식까지 담아 한국근대사 산책 완간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성역.

일제의 쌀 수탈현장.

1930년대 모던걸·모던보이 열풍 기사.

징병을 목격하는 선전전.

1926년 6월 10일 일어난 6·10만세운동.

"나는 오로지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태어났다"



이선정 기자



만년
다자이 오사무 지음/송태욱 옮김
서커스/9800원

20세기 일본문학 대표 비운의 천재작가 다자이 오사무 첫 창작집 '만년' 완역 발간

20세기 일본 문학계를 대표하는 비운의 천재작가 다자이 오사무(1909-1948·본명 쓰시마 슈지·사진). 네 번의 자살 시도 끝에 애인과 함께 투신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그의 사망 60주기를 맞아 첫 창작집 '만년'이 발간됐다. 그간

부분적으로 소개된 적은 있으나 완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출판사 측은 밝혔다.

'인간실격' '사양' '귀향' 등 수많은 문제작들의 시발점인 이 단편집은 작가가 27살에 낸 것이다. 청년기에 발

표한 작품이 '만년(晩年)'이다. 죽음을 앞둔 노인이 인생을 회고하며 쓸 법한 제목을 사용한 이유는 그의 인생 역정을 보면 조금은 이해된다.

중의원과 귀족원 의원을 지낸 지방 호족의 자제로 태어난 다자이 오사무는 학생 시절 좌익 운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좌파적 성향의 글을 많이 썼다. 출신 성분과 운동적 지향성 사이의 괴리를 고민하던 그는 도쿄제국대학 불문과 재학 중 카페 여공과 함께 투신자살을 시도했으나 여공만 죽고 자신은 살아남았다. 그 죄책감이 작가의 평생을 따라다닌다.

1936년에 발표된 만년은 이 같은 청년기의 고뇌, 좌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스스로 멸망해가는 백성의 한 사람이라 믿으며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글로 남기고 싶다는 바람으로 작품을 썼다는 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단편집 한 권을 위해 10년을 허비했다.

원고지 10만 매. 그리하여 남은 것은 간신히 이것뿐이다. 이것뿐. 하지만 나는 믿고 있다. 이 단편집은 해를 거듭할 수록 더 질게, 당신의 눈에, 당신의 가슴에 침투해갈 게 틀림없다는 것을. 나는 오로지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태어났다."

'만년'은 다른 작품이 그러하듯 그의 자서전적 성향이 강하다. 일본 현대문학 권위의 상인 제1회 아쿠타가와상 의 최종심에 오른 '역행'이라는 글에서 주인공은 '노인'이다. "그러나 그는 스물다섯을 넘겼을 뿐 실제 노인은 아니다. 그래도 그는 노인이다. 그는 두 번 자살에 실패했다. 끝내 한 편도 팔리지 않았지만 백 년 남짓한 소설을 썼다. 노인은 지금 병상에 있다. 방탕한 생활에서 얻은 병이었다."

'어릿광대의 꽃'도 까페 여공과의 동반 자살을 기도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좌익 운동에 지친 21살의

작가 요조가 술집에서 만난 여성 소노와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것. "다모토 가우라에서 동반자살한 사람이 있었다. 같이 몸을 던졌는데 남자는 향기로 돌아오는 어선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여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요조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요양원 안이었다."

'추억'은 그의 유년기와 소년기에 대한 자전소설로 읽힌다. 감성에도 자학에도 빠지지 않은 성장 문학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습작 시절 폐기해버린 작품들을 모아 배열한 것으로 보여지는 프롤로그 격인 '일', '다자이 오사무'는 필명으로 발표된 첫 작품 '열차' 등도 눈보인다.

영원한 청년작가의 글은 고난과 자학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성장통'을 앓는 이들을 치유하며 더 살아가 날에 '성장통'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올림픽의 빛과 그림자

서동오의 책과 세상



east5@kookje.co.kr

지난 8일 개막한 2008 베이징 올림픽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24일 마지막 남은 경기인 남자 마라톤과 의전인 폐막식을 치르며 베이징 올림픽 성화는 꺼질 것이다. 올림픽을 주시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번 축제가 선사했던 감동과 전율을 떠올리면서 변하지 않는 일상으로 복귀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올림픽이 뭐기에 그토록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것일까?'

올림픽을 실패하고 나서 웬 어떤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산시민에게는 향후 올림픽이 그저 마를 편하게 보고 즐기면 되는 '강 건너 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가 2020년 올림픽을 유치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유치해 실패하게 되면 부산시는 빚더미에, 반대로 성공하면 돈방석에 앉게 된다. 수년 내 부산시민들은 지역 내 올림픽 유치 결정을 위해 단안을 내야 할지 모른다. 이미 지역 여론은 이와 관련,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려 있으니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지구촌 축제'가 가진 빛과 그림자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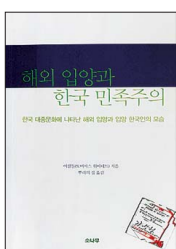
'스포츠는 아름답다'고 설명했다. 그 말이 어렵다면 지은이가 '강추'한 스포츠 명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면 되겠다. '...1936년 올림픽에서 레니 리펜 슈탈의 영화에 찍혀 보존된 400m계주 마지막 주자로 달리는 제시 오언스의 모습은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낸 일상으로 복귀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올림픽이 뭐기에 그토록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것일까?'

지은이의 지적인 스포츠 예찬론은 양극에 서서 스포츠를 단선적으로 대하는 우리 사회를 떠올리게 한다. 7080 세대는 대학을 다니며 '독재 권력을 스포츠를 '3S(스크린 섹스 스포츠)' 안에 넣어 우민화한다'는 담론을 내놔고 받아들였다.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우수한 체육인에게만 지원을 쏟아주는 엘리트체육주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스포츠는 그저 보고 즐기는 매질의 대상이거나, '인간의 육체를 통해 내려야 할지 모른다. 이미 지역 여론은 이와 관련,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려 있으니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지구촌 축제'가 가진 빛과 그림자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터이다.

베이징 올림픽은 스포츠 그 자체는 아름답지만 올림픽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경을 이겨내며 목격한 바를 향해 나아가며, 승자와 패자를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매혹과 열광'은 최근 돌베개가 번역해 국내에 간행한 책 이름이기도 하다. 원저자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한스 울리히 고프라이트 교수, 옮긴이는 한창호 씨. 부제 '어느 인문학자의 스포츠 예찬'에서 알 수 있듯 올림픽을 정면으로 다룬 책은 아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이 왜 그토록 경연장이라 볼 때, 이 책은 스포츠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 발 나아가 올림픽의 순-역기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지은이는 인문학자답게 마하누엘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통해

"대한민국은 우리가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말하길 바라겠지요"

임은정 기자 ie09@kookje.co.kr



해의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이삼돌(토피아스 웨이덴) 지음
소나무/1만5000원

"미국인들은 한국을 가리켜 세계 최대의 장난감, 섬유, 그리고 아기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해외 입양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유럽, 미국,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저의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시아 위크' 인터뷰, 1990년)

"세계 12위 경제로 도약한 한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로 입양 되는 부끄러운 일이 계속되기 때문이

스웨덴 입양인 이삼돌 박사
버림받은 조국의 무책임과
염치없는 민족주의에 일침

다." (코리아타임즈 사설·2003년) 세계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고아 수출', '아동 거래' 등의 부끄러운 낙인이 찍혀 있다. 한국전 종전 이후 시작된 15만 여 한국 아이들의 이주는, 수백만에 이르는 친부모 양부도 친척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같은 중요한 타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어를 이삼돌(스웨덴 이름 토피아스 웨이덴). 그는 우리 사회가 수치 속에 잉태되고 어둠 속에 버려져 있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그가 대한민국이 해외에 방기한 15만 6000여 명의 목소리와 함께 돌아왔다. 그의 가슴에는 대한민국이 저지른 악행을

거침없이 고발하는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라는 텍스트가 안겨 있었다.

한국 사회가 입양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내가 성인 입양인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1996년 여름 시작됐다. 수백 명의 제와 한국인이 참석했는데 취재기자들은 입양인들의 드라마틱한 개인사를 거듭 캐묻고 한국 부모와의 눈물겨운 재회 장면들을 담았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말해줄기를 바랐다." 이러한 증상이 이삼돌은 아직도 없이 해외 입양인에 대해 재한국인화를 도모하는 '한국 민족주의의 거대한 식성'이라고 진단했다. 혈연과 동질성에 바탕을 둔 한국 민족주의의 도식적 상상력을 버

리지 않는 한, 입양인의 진상에 접근할 수도, 그 해결책을 산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근본 해결책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제3 영역의 아이덴티티'를 요구한다. 한국인뿐 아니라 한국인 디아스포라, 정신대 할머니와 입양 한국인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창립총회' 참석차 방한한 이삼돌 박사.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 혹은 동정과 안타까움의 대상이었던 입양 한국인들이 자기 목소리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기를 마련하고 있다.